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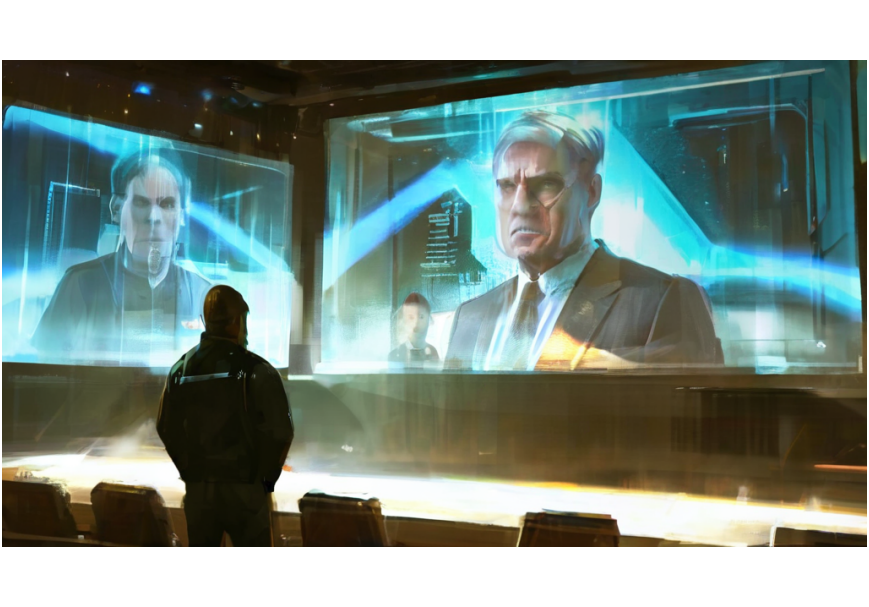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3

❖

의원들의 홀로그램 모니터가 잔뜩 떠 있는 오리엔티스 브리핑룸에서, 한재호 원장이 취조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네모를 잡았는데, 기술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한 의원이 재호에게 물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애초에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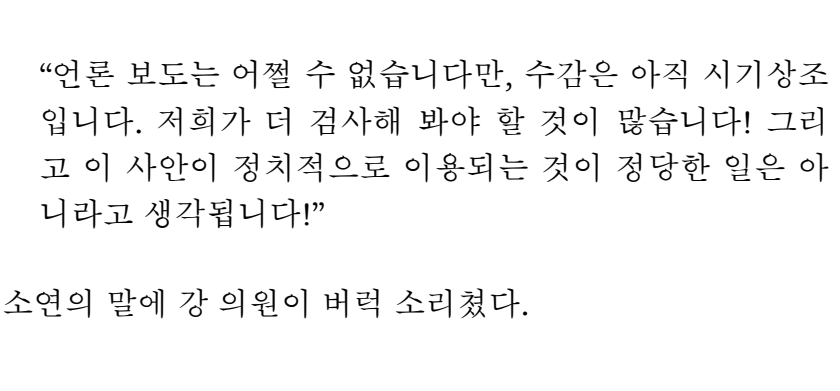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찾지 못했지만, 기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빨리 언론에 알리고, 우리 군에 인도해서 일단 수감을 시킨 뒤에 취조를 하든 심문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총선이 코앞이에요!"

이번에도 다른 의원이 끼어들어 말했다. 이에 재호와 동석해 있던 소연이 흥분해서 똑같이 끼어들었다.

"언론 보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감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저희가 더 검사해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연의 말에 강 의원이 버럭 소리쳤다.



"아니, 당신은 빠지고! 이번에 네모 소탕도 결국 우리 군이 급파했기에 가능했던 것 아뇨! 당신네 오리엔티스는 전멸 직전이었어요!"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한 원장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클론 기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읽힙니다!"

소연이 다시 발끈해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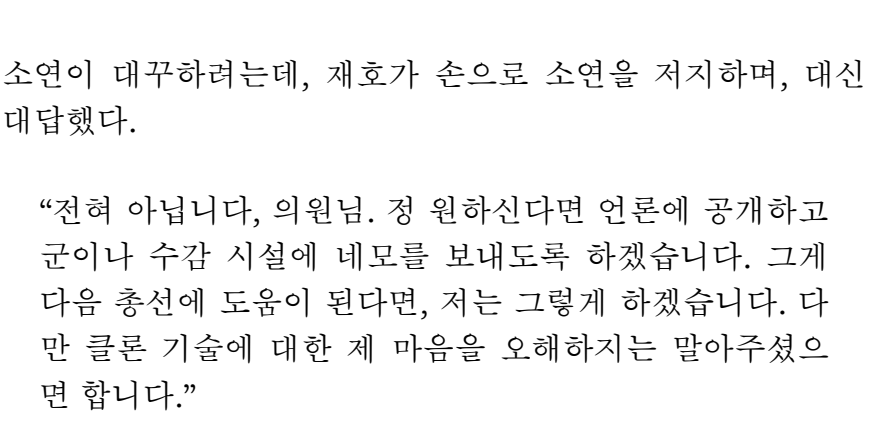
"의원님. 우리 원장님께서 총선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완벽한 클론 기술을 가지고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한 원장, 음흉하게 뒤에서 작전 짜는 거 아니요? 클론 기술,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소? 소울라이딩이면 괜찮다고! 어줍잖게 있지도 않은 클론 해준다고 선동해서는! 속셈이 뭐요? 그렇게 인기 관리해서 대선이라도 나오는 게 목표인 거요?"

소연이 대꾸하려는데, 재호가 손으로 소연을 저지하며, 대신 대답했다.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정 원하신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군이나 수감 시설에 네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클론 기술에 대한 제 마음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연이 어이가 없다는 듯 이번에는 재호에게 소리쳤다.

"원장님! 아직 기술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소연에게 대답하는 대신 의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오리엔티스를 수감시설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해주십시오. 저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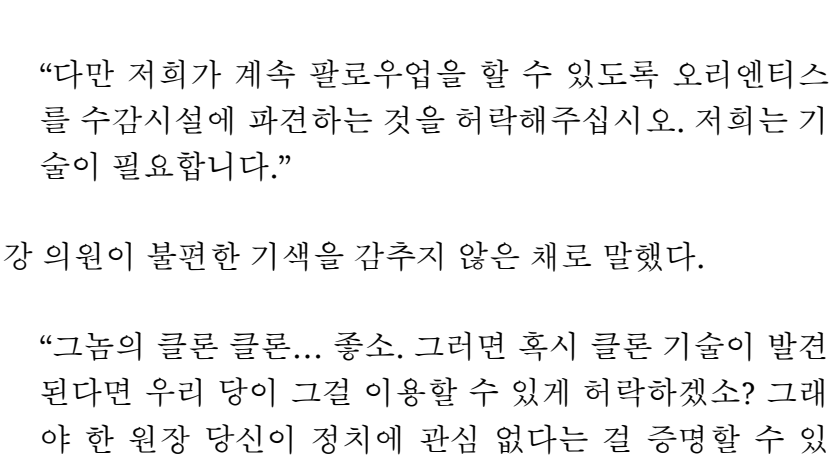
강 의원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로 말했다.

"그놈의 클론 클론... 좋소. 그러면 혹시 클론 기술이 발견된다면 우리 당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겠소? 그래야 한 원장 당신이 정치에 관심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이 여전히 씩씩거리는 태도로 재호에게 소리쳤다.

"원장님!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재호가 소연에게 쉼호흡을 좀 하고 진정하라는 듯 '워 워' 손짓을 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주십시오."

잔뜩 화난 소연과 침착한 재호의 표정이 대비를 이루었다.

❖

군 소속의 콘보이 차량과 수송 트럭, 그 주위를 둘러싼 병력들의 차량이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오리엔티스의 차량들이 그 뒤를 뒤따랐다.

치수, 준호, 태섭 등의 부대원들이 바이크를 타고 호위하는 가운데, 메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태웅이었다. 태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와 무전 통신을 나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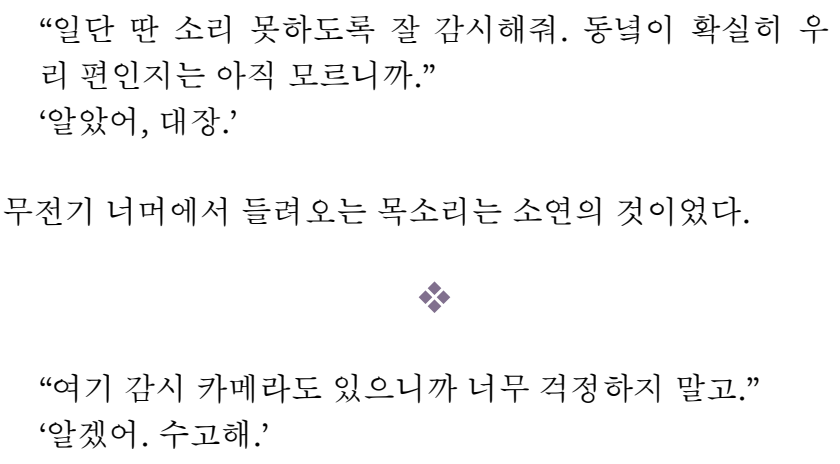
"일단 딴 소리 못하도록 잘 감시해줘. 동녑이 확실히 우리 편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알았어, 대장.'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연의 것이었다.

❖

"여기 감시 카메라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수고해.'

소연이 무전 통신을 종료하며 차량 안에 탄 인원들을 둘러보았다. 동녑과 서창, 그리고 지희, 유다 등의 네모 부대원들이 철창 안에 갇힌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직 서창만이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다. 동녑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창이 갇힌 철창 앞에 서서 먼저 말을 걸었다.



"나한테 더 할 말은 없어요, 할아버지?"

서창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끝까지 이러기에요? 정말 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눈꼽만큼의 정도 없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서창이었다.

"나는 그래도 할아버지 아무리 그냥 툭툭 내뱉어도, 할아버지가 전부였을 뿐이에요."

동녑이 포기한 듯 자리로 돌아가 한숨을 쉬며 앉았다.

"그래, 그만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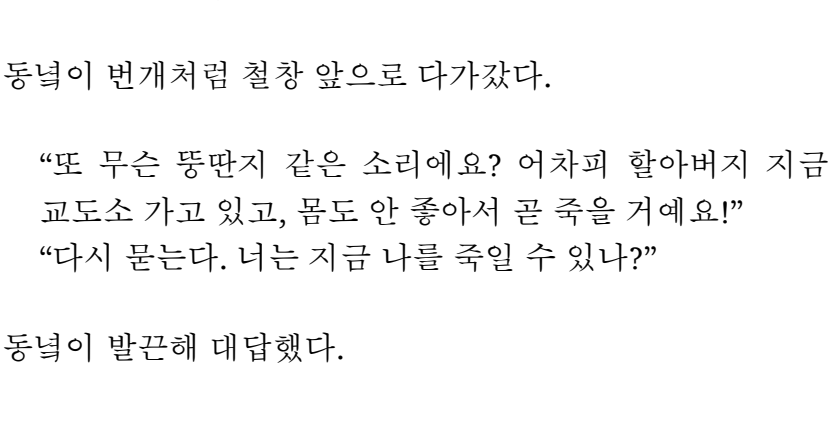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나?"

동녑이 번개처럼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요? 어차피 할아버지 지금 교도소 가고 있고, 몸도 안 좋아서 곧 죽을 거예요!"
"다시 묻는다. 너는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나?"

동녑이 발끈해 대답했다.



"네, 차라리 그러고 싶어요! 제 손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서창이 동녑을, 아니 동녑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동녑이야."

동녑이 화가 치밀어 올라 허리춤에 차고 있는 총을 꺼내 서창의 얼굴에 겨누며 소리쳤다.

"아뇨!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서창은 여전히 동녑의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열을 셀 테니 죽여주게. 열... 아홉..."

동녑이 당황하는 가운데, 서창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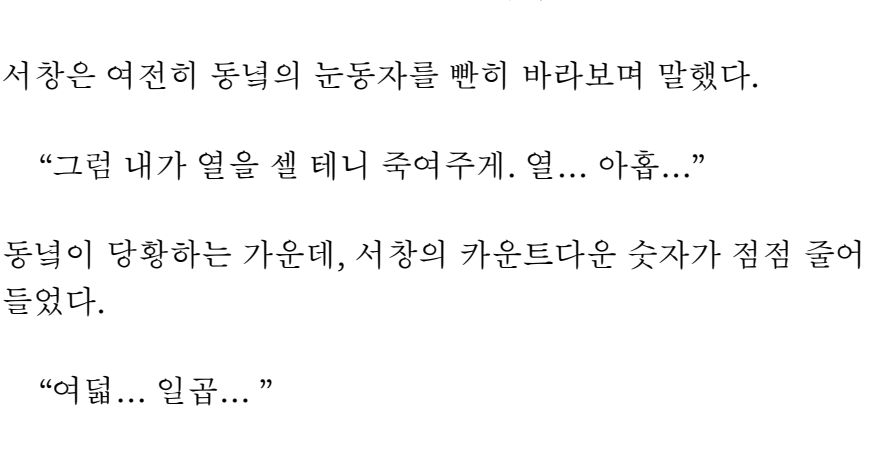
"여덟... 일곱... "

총을 든 동녑의 손이 요동쳤다. 소연이 뛰어들어 동녑을 말렸다.

"동녑, 쏘면 안 돼! 우리 권한이 아니야!"
"내가 쏠 거야!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죽일 거야!"

그 와중에도 서창의 카운트다운 숫자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셋... 둘... 하나...."



방아쇠를 당기려던 동녑의 손에 갑자기 힘이 풀렸다. 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녑도 바닥에 떨어지는 총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동녑이 오열하며 말했다.

"못 쏘겠어요, 할아버지. 나 못 쏘겠어요..."

서창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했다.

"그게 동녑이다. 넌 동녑이야."

동녑이 서창을 향해 오열했다.

"이런 내가 정말 싫어요! 왜 나를 키웠어요! 왜 죽이지 않고 나를 이용했어요!"
"나도 죽이고 싶었다만, 삶은 의지만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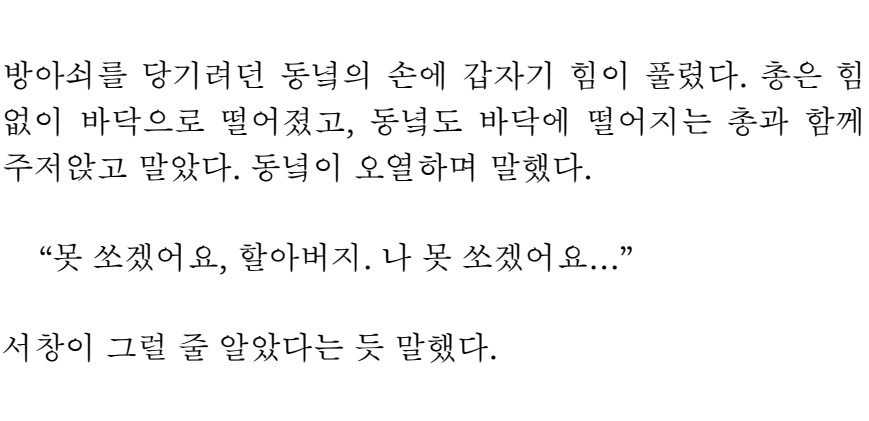
소연이 서창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더 이상 사적인 얘기는 금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동녑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서창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지긋이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다시 봅시다."
"네?"
"당신을 지켜요. 허물어지지 말고."
"지금 저까지 가스라이팅 하시는 겁니까?"
"아뇨.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소연이 총을 꺼내어 서창에게 겨누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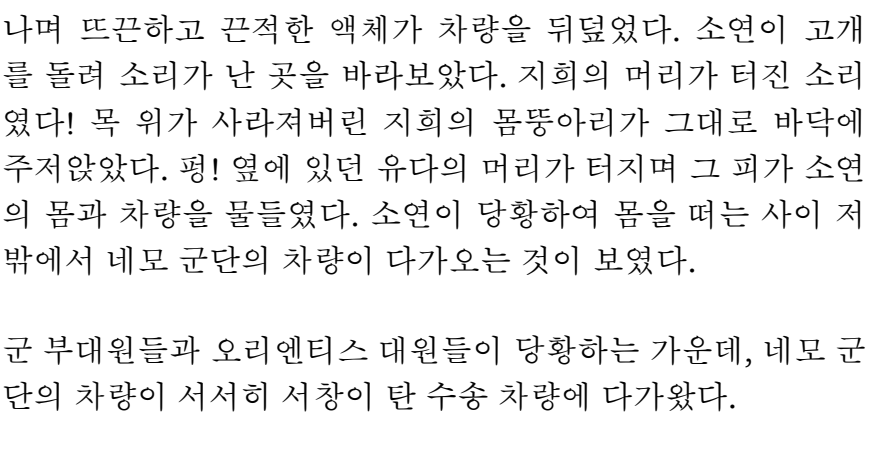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발라스 모굴리스."
"뭐?"

소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팍! 터지는 소리가 나며 뜨끈하고 끈적한 액체가 차량을 뒤덮었다. 소연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지희의 머리가 터진 소리였다! 목 위가 사라져버린 지희의 몸뚱아리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펑! 옆에 있던 유다의 머리가 터지며 그 피가 소연의 몸과 차량을 물들였다. 소연이 당황하여 몸을 떠는 사이 저 밖에서 네모 군단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군 부대원들과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네모 군단의 차량이 서서히 서창이 탄 수송 차량에 다가왔다.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자이 바실라 데이 이레..."

서창이 소연을 향해 주문을 외우자 소연의 눈동자가 돌아다거니, 소연의 뒷목에 있던 불이 초록색으로 변했다. 이는 소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 부대원들이나 오리엔티스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뒷목에 초록불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모 군단을 향해 있던 총구는 순식간에 서로를 겨눴고, 군 부대원과 오리엔티스 대원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오직 나이든 장교급의 군인들과 태웅, 그리고 동녑만이 뒷목에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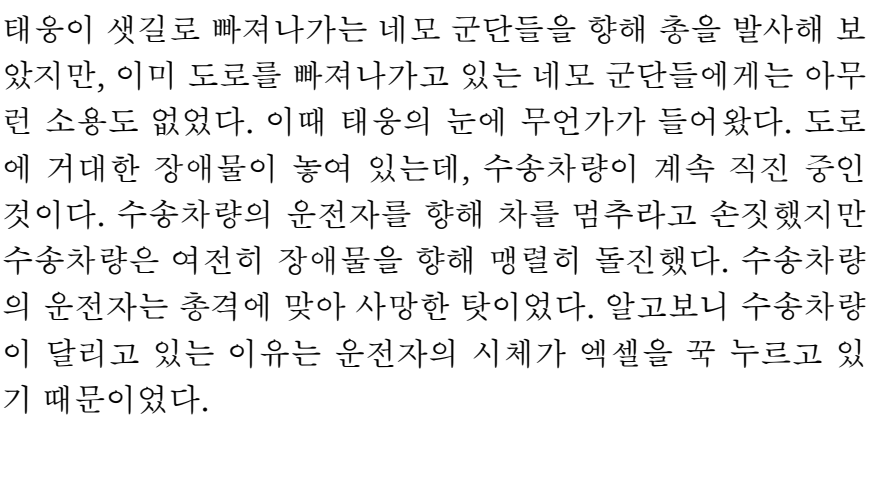
소연이 바닥에 쓰러지자, 동녑이 황급히 소연의 곁으로 다가가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뒷목에 초록색 불이 들어온 군인들이 철창 안에 감금되어 있던 서창을 풀어줬다. 서창이 유유히 철창 안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동녑이 어떻게든 서창을 막아보려 다가갔지만 군인들이 동녑을 둘러싸고 동녑을 때리기 시작했다.

❖

태웅은 대원들이 멀티 조종 모드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소연! 왜 갑자기 멀티 모드야!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디스커넥트! 디스커넥트!"

하지만 대원들과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태웅이 차량을 보니 치수, 준호, 태섭 역시 초록불이 들어온 채로 오리엔티스 대원들과 군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었고,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충돌하고, 폭발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몇몇 오리엔티스 대원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나오했고, 개중에 치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장갑이 부서지면서 멀티 조종 모드에서 연결이 해제되는 것이 태웅의 눈에 들어왔다.

태웅이 치수에게 소리쳤다.

"치수! 대원들을 부탁해!"

❖

지희가 운전하는 바이크가 서창이 있는 메인 차량의 곁으로 다가왔다. 머리가 폭발했던 지희는 아무래도 클론이었던 모양이었다. 서창은 차량의 뒷문을 열어젖히더니, 지희가 운전하는 바이크를 향해 점프했다. 서창이 지희의 바이크에 오르는데 성공하자, 네모 군단들은 급격히 샛길로 드리프트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태웅이 샛길로 빠져나가는 네모 군단들을 향해 총을 발사해 보았지만, 이미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는 네모 군단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때 태웅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도로에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수송차량이 계속 직진 중인 것이다. 수송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차를 멈추라고 손짓했지만 수송차량은 여전히 장애물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수송차량의 운전자는 충격에 맞아 사망한 탓이었다. 알고보니 수송차량이 달리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의 시체가 엑셀을 꾹 누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수송차량이 돌진하는 가운데, 태웅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동녑이 의식을 잃은 소연을 태웅의 차량으로 건네어 넘겼다. 아슬아슬하게 소연을 받은 태웅이 소연을 자리에 앉힌 뒤 다음으로 넘어오려는 동녑을 받아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동녑의 발목을 붙잡았다.

멘트다운 상태의 군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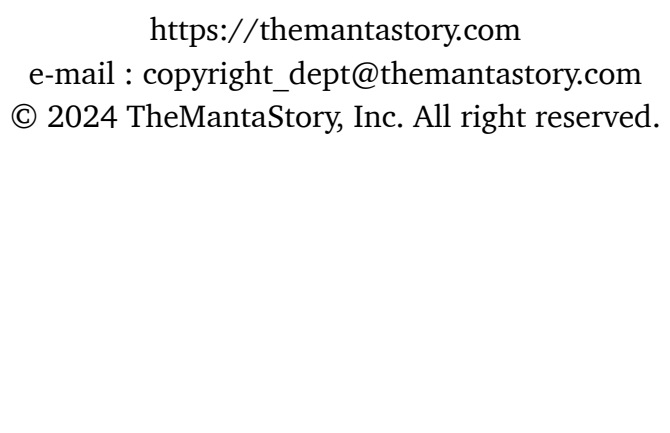
그것도 여러 명의....

곧 좀비 같은 군인들이 동녑의 몸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태웅의 차량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동녑은 라이딩 건을 꺼내어 소연이 있는 곳을 향해 발사하는 순간....

수송차량이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폭발하고 말았다.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 가까스로 차를 세우는데 성공한 태웅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Continued to ep.14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